

한국·일본·EU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비교*

유 찬 희

대내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관심 분야를 면밀히 파악하고,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일본·EU의 국민의식 조사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 농업·농촌의 현재 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1. 조사 개요

3국의 조사 시기와 조사 방식, 조사 내용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나, 농정 현안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국의 조사 시기와 조사 방식, 조사 내용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나, 농정 현안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매년 농업인·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를 조사하고 이슈가 되었던 농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본문에서 참고한 내용은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이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농정 현안 및 국민의식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참고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1990, 1993, 2000, 2008년

*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림수산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chrhew@krei.re.kr, 02-3299-4232)

실시 결과¹⁾와 2002년 실시한 「농산물 무역에 관한 여론 조사」, 그리고 2006년 실시한 「식량 공급에 관한 특별 여론 조사」 등이다.

유럽연합에서는 TNS Opinion & Social을 통하여 2007년 유럽연합 시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를 실시한 바 있다. 유사한 조사가 2006년에도 실시되었지만, 2006년에는 2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반면, 2007년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27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한국, 일본, EU 국민의식 조사 개요

구분	한국	일본	EU
조사 시기	2007년: 2008.1.2~1.25 2008년: 2008.9.5~9.26	2008.9.11~9.28	2007.11.19~12.14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2007년: - 도시민: 전국 도시지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대상 면접조사 (비례할당 추출법으로 표본 선정) - 농업인: 패널 2,000명 대상 우편조사(852명 응답) 2008년: 전년대 동일 - 도시민: 1,508명 - 농업인: 666명 응답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3,144명 면접조사(층화2단 무작위추출법으로 표본 선정)	27개 회원국 15세 이상 남녀 26,730명 면접조사 (인구규모, 인구밀도 반영한 다단계 무작위추출법으로 표본 선정)
비고	조사대상 농업인의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 상회	모집단 5,000명, 유효회수율 62.9% (3,144명)	2006년에는 25개국 대상 조사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추가)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8.3.

2. 주요 조사 결과 비교

농식품 수입에 대한 의식

한국과 일본 소비자는 국산 농식품을 수입 농식품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의 66.4%가 조건에 관계없이 국산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한 반면, 가격이 더 비싸도 국산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한국 도시민 응답자의 비중은 38.0%로 다소 낮은 편이다. 원산지에 관계없이 품질과 안전성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1.9%로 나타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유럽연합 소비자들은 수입산도 EU 품질·안전성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6%에 이르렀다. 이는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엄격한 농식품 관련 기준에

한국과 일본 소비자는 국산 농식품을 수입 농식품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1) 1990, 1993년 「식생활 농촌의 역할에 관한 여론 조사」, 1998년 「식량 농업 농촌의 역할에 관한 여론 조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는 조건에 관계없이 국산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한국 소비자의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품질과 안전성을 중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역내산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으로 농식품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의 완전 철폐 여부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높고, 조건부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비중이 높았다.

표 2 국산·수입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한국, 2008년)

구분	비율(%)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 구입	38.0
가격차가 크다면 수입 농산물 구입	19.4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선 고려	41.9
기타	-

주: 도시민 응답결과임.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표 3 국산·수입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일본, 2008년)

응답 항목	비중(%)
국산품	66.4
가급적 국산품	22.6
가급적 수입품	0.4
수입품	0.1
상관 없음	10.0
잘 모르겠음	0.5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표 4 수입 농식품에 대한 입장 (EU, 2007년)

응답 항목	비율(%)		
	동의함	동의 안 함	모름
수입산도 EU 품질·안전성 기준 충족 해야 함	86	5	9
농식품 무역장벽이 전혀 없어야 함	37	52	11
농식품 무역장벽이 있어야 함(개도국 제외)	50	36	14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농식품 구매 기준에 대한 인식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원산지를 가장 중시하고, 일본 소비자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부류나 소비자 유형별로 구매시 중시하는 기준은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한국 소비자들은 품목 부류에 따라 중시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채소, 과일, 수산물, 외식은 품질(맛)을, 곡물, 육류는 원산지(국산/수입산)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육류의 경우 원산지(국산/수입)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3.8%에 이르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논의가 영향을 미친

농식품을 구매할 때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원산지를 가장 중시하고, 일본 소비자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판단된다.²⁾ 이 점은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의사가 10.6%에 그친 결과에도 나타난다.

일본 소비자의 구매시 중시 기준은 국산·수입 농식품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³⁾ 국산 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89.%) 반면 수입산 선호 소비자는 가격을 가장 중시(80.0%)하였다. 2000년 7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안전성(82.0% → 89.1%), 품질(42.3% → 56.7%)을 중시하는 소비자 비율이 증가하였고, 신선도(57.3% → 51.6%)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5 농축산물과 식품 구입 시 고려사항 (한국 도시민, 2008년)

구분	비율(%)					
	채소	육류	곡물	과일	수산물	외식
가격	9.1	7.9	8.1	6.5	7.1	14.9
안전성	32.1	23.6	19.4	18.1	26.7	15.8
품질(맛)	36.1	20.1	24.9	56.4	34.9	50.7
브랜드(인지도)	1.3	3.6	5.5	2.2	2.2	5.2
원산지(국산/수입)	19.4	43.8	40.3	16.0	28.2	9.8
기타(영양 등)	2.1	1.0	1.9	0.7	0.8	3.4
모름/무응답	-	-	0.1	-	0.1	0.1

자료: 김동원외,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표 6 국산품·수입품 선호 소비자의 중시 기준 (일본)

응답 항목	비율(%)	
	국산품 선호	수입품 선호
신선도	51.6	26.7
품질	56.7	6.7
맛	28.0	6.7
안전	89.1	20.0
환경에 대한 배려	13.7	-
가격	17.2	80.0
기타(다양성, 모양 등)	7.3	6.7

주: 복수응답.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국내 식량 공급과 식량 자급률에 대한 인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 모두 자국의 식량 자급률이 충분하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국간 차이는 있지만 식량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는 자국의 식량 자급률이 충분하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2)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음.

3) 표 3 질문 문항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을 선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별도 조사 실시

이러한 결과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애그플레이션 사태를 겪으면서 곡물 자급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량 자급률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6년 59.5%에서 71.7%까지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은 73.6%에서 25.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애그플레이션 사태를 겪으면서 곡물 자급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식량 자급률이 낮거나 비교적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79.1%에 이르렀다. 2006년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식량자급률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9.1%p 상승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5%p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식량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93.3%에 달했다.

표 7 식량자급도에 대한 의식 (한국 도시민, 2008년)

응답 항목	비율(%)	
	2006년	2008년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59.5	71.7
현재 수준으로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37.6	25.4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2.9	2.9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표 8 식량 자급 수준에 대한 인식 (일본)

응답 항목	비율(%)
낮다	57.6
비교적 낮다	21.5
보통이다	8.3
비교적 높다	4.9
높다	2.4
잘 모르겠다	5.2

주: ‘현재 칼로리 기준 40%인 식량 자급률 수준인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앞의 조사 결과와 별도로 일본 국민들은 미래의 식량 수입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식량 수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93.4%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불안하다’ 56.5%, ‘다소 불안하다’ 37.0%).

부정적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량·원자재 수입 감소, 외국의 흉작 가능성, 식량 증산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바이오 연료를 원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애그플레이션 사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식량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일본)

응답 항목	비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식량과 원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	55.8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외국의 흉작 가능성	49.6
장기적인 환경 문제 악화 등으로 인한 식량 증산 한계	46.6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에 따른 곡물 부족 가능성	35.8
인구 증가에 따른 식품 수요 증가	36.9

주: 복수응답.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농업농촌의 기능

한국과 EU 응답자 중 대다수가 농업·농촌의 기능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이 과거에도 중요하였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6년 81.4%에서 2007년 77.5%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85.9%로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까지 포함하면 중요성을 인정하는 비중은 88.4%, 85.8%, 93.8%에 이른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농업·농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90%에 달해, 양국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EU 응답자 중 대다수가 농업·농촌의 기능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농업·농촌 역할의 중요성 인식 (한국 도시민)

응답 항목	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81.4	77.5	85.9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7.0	8.3	7.9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2.1	2.1	2.1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	9.3	-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4.1	2.7	4.1

주: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은 2007년 조사문항에만 포함.

자료: 김동원외,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년도.

표 11 농업·농촌 역할의 중요성 인식 (EU)

응답 항목	비율(%)
매우 중요함	45
중요함	45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5
중요하지 않음	1
무응답	4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8.3.

일본에서는 농업의 주요 기능이 안전한 식량의 공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 안심, 안정의 ‘3安’에 대한 요구와 환경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농업과 농촌에서 각각 기대하는 기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농업의 주요 기능이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 안심, 안정의 ‘3安’에 대한 요구와 환경 측면에 대한 고려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농촌에 대한 수요에서도 농업의 기능과 연계하여 식품 공급 기능을 강조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환경 측면의 기능(생물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등)과 삶의 공간을 제시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농업에 대해 기대하는 기능 (일본)

응답 항목	비율(%)
고품질의 신선하고 맛있는 식품 공급	50.4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식품 공급	25.6
수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식량 생산	53.1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저가로 식량 공급	29.9
식량 공급 기반 확보 및 안정적인 식량 공급	43.8
생산 단계의 안전과 위생관리 확보로 안전한 식품 공급	50.5
환경을 고려한 생산 방식을 통한 식량 공급	41.0
기타	3.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표 13 농촌에 대해 기대하는 기능 (일본)

응답 항목	비율(%)
식품 생산	65.8
지역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장소	46.1
수자원을 저장하고 재해를 방지	29.6
전통 문화를 보전하는 공간	18.2
여가 활동의 공간	8.3
농촌 생활과 농업 체험을 통한 야외교육의 장	36.1
생물 서식 환경의 보전과 경관 형성	48.9
기타	2.9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농업·농촌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의 경우 농업·농촌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농업인, 도시민 모두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18.2%)을 제시한 반면, 도시민은 ‘농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강화’(17.4%)로 응답하여 생산자·소비자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14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1순위 (한국, 2008년)

응답 항목	비율(%)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의 사회복지 확충	14.0	17.0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47.7	28.1
농축산물의 품질개선과 안전성 강화	3.0	17.4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등 유통구조 개선	4.8	11.3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촌의 자연환경 보존	3.1	7.9
농촌 기반시설 확충 등 거주환경 개선	4.1	3.6
농업·농촌 관심 제고와 소통기회 확대	3.5	2.9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18.2	10.4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농업 육성	0.3	1.5
무응답/모름	1.3	0.0

자료: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일본의 경우 농업 부문의 쇠퇴와 농촌 지역의 과소화·고령화 추세 속에 향후 농업·농촌 정책 방향의 경제적 효율성 및 국토·환경 보전 기능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68.2%). 국토·환경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도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1996년과 비교할 때 양자를 모두 중시(14.0% → 17.4%), 국토 환경 보전 기능을 보다 중시(42.2% → 68.2%)하는 의견은 증가한 반면, 경제적 기능을 더욱 중시(26.8% → 9.3%)해야 한다는 의견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농업 부문의 쇠퇴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 추세 속에 향후 농업·농촌 정책 방향의 경제적 효율성 및 국토·환경 보전 기능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표 15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 (일본)

응답 항목	비율(%)
경제성 효율성보다 국토환경보전 기능 중시	17.4
경제성 효율성 향상 노력, 국토 환경 보전 기능도 중시	68.2
국토환경보전 기능보다 경제성 효율성 중시	9.3
기타	5.2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2008.11

유럽연합은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 1순위를 제시하고, 1순위를 포함하여 최대 4개 분야까지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 비율과 1순위 응답 비율에서 가격 안정, 신선·안전한 식품 생산, 농가소득 안정 분야가 가장 큰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표 16 농업·농촌 정책의 우선 순위 (EU)

응답 항목	비율(%)	
	전체	1순위
농식품 소비자 가격 안정	43	11
신선·안전한 농식품 공급	42	10
생산자 소득 안정	40	19
환경에 대한 고려 증진	33	4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촉진	30	9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생산 장려	29	8
동물복지	25	2
유기농업 확대	24	4
가족농 보호	24	3
농산물 시장 안정화	23	4
유럽농업의 경쟁력 강화	21	7
지속가능한 영농 양식 확대	21	4
고품질 농산물 생산	21	2
원산지 및 생산방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19	3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19	3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8.3.

참고자료

-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2.
 김동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10.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농림수산성, 1998.9.
 농림수산성, 農産物貿易に関する世論調査, 농림수산성, 2000.7.
 농림수산성, 食料の供給に関する特別世論調査, 농림수산성, 2006.11.
 농림수산성, 食料・農業・農村の役割に関する世論調査, 농림수산성, 2008.11.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2008.3.